

“탄소산업 수도 발전 계기 마련”

송 지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탄소산진흥원 건립 강조

“효성의 1조원 투자 유치 협약에 이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탄소산업 육성이 가속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확실히 마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일 발표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전북 탄소산업 진흥의 확실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탄소산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특화 산업벨리로 발전할 것”이며, “연구기관 21개와 탄소기업 71개 등이 집적화되고 2천여 명의 취업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2일 전망했다.

송 지사는 이번 산단 지정을 두고 “지난달 20일 효성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전북 탄소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확실히 발전시켜 전북대도약의 핵심 사업이자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탄소산업이 일본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에 대해 송 지사는 “산업의 발아시기부터 전북이 주도해 온 탄소산업의 수준은 이제 대도약 직전까지 온 상태”로 “효성 투자는 작년 10월부터 효성 임원진을 직접 만나 증설을 요청해왔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추진방향 토론회

관련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성과와 추진방향 토론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6개 클러스터 사업단, 대학 연구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준비해왔다”면서 “일본의 규제가 전북 탄소산업에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는 모멘텀이 되긴 했지만 10년 넘게 이어 온 전북의 담대한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투자 성과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비롯한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관련해서는 “일본이 30년 걸려 성공한 T-700급 탄소섬유 개발을 전북과 효성의 연구진이 3년 만에 성공했다”면서 “현재 항공, 우주, 방산산업 소재 등 고성능 분야에서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스포츠와 레저 그리고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저장용기에서는 우리 탄소섬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상용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국내 탄소섬유 수요시장은 현재 대비 600%까지 확장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로 전북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의 국내 공급시장 점유율을 현재 30%에서 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2018년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연간 3460톤 규모이지만 2028년까지 2만4000톤까지 예측돼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효성이 계획대로 증설을 이행한다면 국내시장 80% 점유율도 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와 효성의 설명이다.

전북 탄소산업의 성장 과제와 관련, 송지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원천기술과 상용화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수요시장 확대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

하고 “수 십 년간 이어진 적자와 매출 부진을 감내하면서도 탄소섬유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해 세계 탄소시장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지사는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송 지사는 “탄소산업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문가 없이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이 산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책임지고 담당할 컨트론타워인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을 건립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청, 우리나라 청자 발생·변천과정 보여줘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청자요지(道通里 靑窯窯址)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다.



진안 성수면 도통리 청자요지 현장.

도통리 청자요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백운면에 자리한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 중평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다. 중

평마을 전역에는 청자와 갑발 조각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일부에는 대규모의 요도구 퇴적층이 아직 남아있다.

요지의 존재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2013년 최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도통리 청자요지는 10~11세기에 걸쳐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제작하던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전축요, 塼築窯)와 벽돌가마 이후 청자를 생산했던 진흙가마(토축요, 土築窯)가 모두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마 축조 양식의 변화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천하는 한반도 초기청자 가마의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조사된 벽돌·진흙가마는 총 길

이 43m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초기청자가마이며, 최초 가마의 벽체를 벽돌로 축조하였다가 내벽을 진흙·갑발을 활용해 개보수하는 방식이 보수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다른 가마인 진흙가마는 총 길이 13.4m로, 벽돌 없이

진흙과 갑발로 구축되어 있다. 가마 내부와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해무리굽완, 잔, 잔발침, 주전자, 꽃무늬 접시 등 다양한 초기 청자와 다량의 벽돌, 갑발 등 요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대(자)’ 자명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를 비롯하여 고누놀이개 새겨진 갑발, 청자가마의 배연공으로 추정되는 벽체 조각 등의 유물도 출토됐다.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변화양상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군은 앞으로 문화재청과 전북도 등과 협력해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시, 탄소소재산업 국산화 전진기지로

산단 조성 본격 착수

전주시가 대일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룰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재산업 집중육성 계획 발표와 효성의 탄소분야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와 맞물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주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조 최중 지정·승인한 만큼, 향후 보상절차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동산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원 66만㎡(약 20만평)에 2000여 여원을 들여 탄소소재는 물론 최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70여개의 기업과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탄소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최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맞물려 탄소섬유의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소소재 생산부터 탄소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탄소국가산단을 통해 관련기업 집적화로 탄소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기업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에 대비해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 남원농악(보존회장 류명철)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에서는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남원농악인정하기로 했다.

남원농악은 호남최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온전히 보존·전승하고 있는 농악으로서 남원시 금지면 응

정리(독우물)를 중심으로 한 ‘독우물’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남원농악보존회와 류명철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농악은 전문적이고 세련된 악기연주뿐만 아니라, 군사농악적 성격을 보여주는 장대한 절차의 판굿, 그리고 팽과리, 장구, 소고 등의 개인놀이까지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